

여야 '무상복지' 정면 충돌... 예산국회 핵심 쟁점 부상

새누리 "野 '신혼부부 임대주택' 카드는 포퓰리즘 공세"

새정치 "무상의 '무'자도 안나왔다 공짜라고 왜곡 말라"

국회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무상 복지'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예산안 합의 기한을 지킬 것인지 주목된다.

우선, 새누리당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에 대해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이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 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 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 사퇴하고 결과적으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던 지난 2011년의 '무상 복지'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무작정 반대했다는 '반서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선별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으로써 더욱 강화된 복지 기조로 맞붙을 놓고 있다.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붙여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복지는 시대적 요구"라며 "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면 길이 보이는 데 자꾸 무상을 강조하며 회피하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사는 반갑게 김광림 국회 정보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화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법안 본격 심의

국민안전혁신특위 첫 회의

기금·예산 분리 놓고 막말

국회는 1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위 차원의 심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했다.

국회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휴일인 16일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두 번째 회의를 갖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예결위로 올라온 부처별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기금안은 예산안과 별도로 심의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민해진 의원들 간에 막말을 주고 받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식 의원은 "특정 기금 사업에 대해 감액, 증액을 심의하면 그 사업의 추진을 그대로 용인하는 꼴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의해야 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책상을 치며 "그만 하세요"라고 언성을 높이며 반박했다.

그러자 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이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 ×× 깡패야? 어디서 책상을 쳐, 인마 예의가 없어. 저런 양아치 같은..."이라 욕을 퍼부었다. 김진태 의원은 "참 예의 바른시네요 욕설이나 하고,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서 반박했다.

이날 또 국회 기획재정위는 경제재정소위 및 조세소위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가동해 상임위별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한편, 국회 국민안전혁신특위는 이날 오후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국내 안전시스템 점검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대통령 귀국... 예산·입법 등 국내 현안 산적

'박근혜표 예산 지키기' 최대과제...국민안전처장 등 인사 임박

급격한 냉각기 접어든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도 '발등의 불'

박근혜 대통령이 다자외교 해의 순방을 마치고 17일 오전 귀국했으나 산적한 국내 현안 때문에 일들이 별로 없어 보인다.

우선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만간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장(장관급)과 인사혁신처장(차관급)에 대한 인사를 이번 주내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야당이 '박근혜표 예산'으로 규정된 65조원의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2주 남짓 남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이다.

이와 함께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제출한 30대 중점방안 처리 여부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집권 3년차에 접어드는 내년 국정 운영의 성패가 좌우될 공산이 크다.

남북 2차 고위급 접촉 무산에 따라 다시 급격한 냉각기에 접어든 남북관계 문제도 개선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과 미얀마 네피도, 호주 브리즈번을 차례로 방문하며 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

했다. 이들 다자회의를 통해 박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 핵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했다.

이와 함께 동북아 외교지형 변화 조정 속에서 중국, 미국, 일본과 회담 또는 현안 관련 대화를 나누며 활발한 정상외교를 펼쳤다.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외교행보로 외교고립 우려를 불식하는 데 힘을 쏟은 것.

이는 두 번째 순방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및 아세안(ASEAN)+3(한·중·일) 정상회의의 계기에 장기간 개최되지 못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개최 제의로까지 이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벼 이삭도열병 피해 첫 '농업재해' 인정

농가 농약대·생계비·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정부 지원 받아

새정치 신정훈 의원 밝혀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처음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피해 농가들이 정부로부터 농약대와 생계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주와 영암을 비롯한 등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기상여건으로 인한 농업재해'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농림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서 올 여름 집중호우와 저온현상으로 발생한 남부지방의 벼 이삭도열병 피해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규정된 '기상여건으로



인한 재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부에 실태조사와 정부지원을 촉구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전남과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벼 이삭도열병 피해는 규모가 50ha 이상인 시군만 해도 8개 시군에 6100ha에 이르고, 농가 피해액도 770억원을 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병해충 피해에 대한 재해판정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에도 병해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시입출금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쑥쑥!! 재테크의 필수!!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수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해택 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요서비스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4. 11. 10(월) ~ 11. 21(금)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형일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전형일시
일반대학원	박사	신학과(Ph.D.)	12.12(금) 오전 10:00~
		목회학과(D.Min.)	
	석사	신학과(Th.M.)	12.13(토) 오후 3:00~
		신학연구학과(M.A.T.)	
신학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12.12(금) 오전 10:00~
		유아교육학과(M.Ed.)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12.12(금) 오전 10: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2.13(토) 오후 3:0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2.13(토) 오후 3:0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2.13(토) 오후 3:00~
		한국어교원학과(M.A.)	

학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로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 24(수)
③ 전형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경주광역시 북구 양산책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